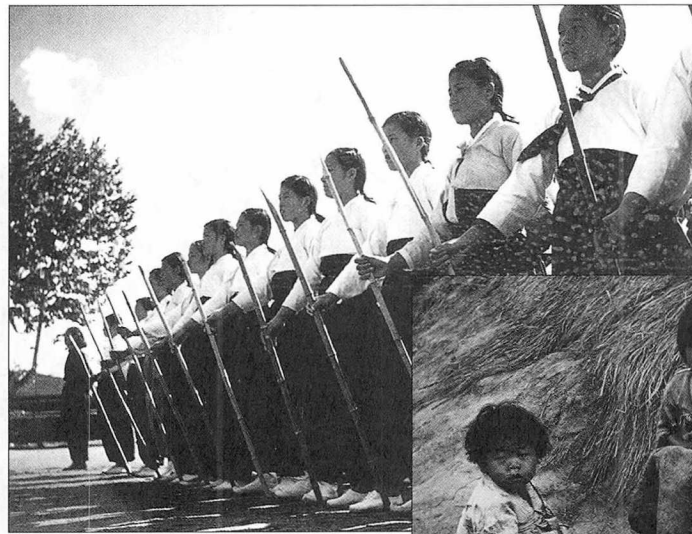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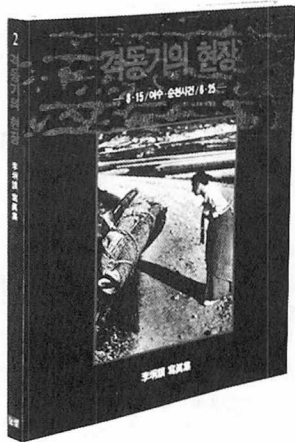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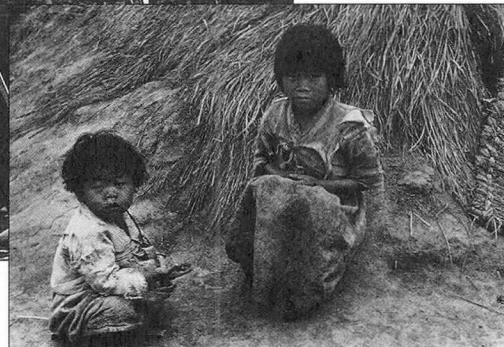


# 우리 역사의 좌표 찍기

이경모 《격동기의 현장》



1 대동청년단 광양지부 결단식, 죽창을 든 소녀들이 사열을 받고 있다. (전남 광양 1948.6)



2 전남 화순 난민촌의 아이들. (1951.4)

진정한 사진작가는 역사의 좌표를 찍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 이들이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역사의 현장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사진이 시대의 발언이요, 대변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집 《격동기의 현장》(1989 눈빛)은 우리 현대사의 일그러진 모습을 담아내려 했던 사진작가 이경모(71)의 투혼이 서려 있다.

해방이 되자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민중은 감격하지만 그 기쁨도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군이 점령군의 자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미군의 주둔은 또다른 한반도 현대사의 시련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력거를 탄 미군'의 모습은 점령군의 고압적인 태도로 나타나 있

다. '점 보는 서민들의 생활상'에서는 당시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잘 전한다.

전염병처럼 번지는 이념적 혼란 속에서 남과 북에는 배타적 정통성을 자임하는 정권이 들어선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좌·우로 갈라선 민중들의 대립이 빈발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4·3사건과 여수·순천사건으로 이어졌다. '가마니에 돌돌 말려 있는 남동생의 주검' 앞에서 오열하는 어느 아낙네의 모습과 '즐비하게 누워 있는 주검 속에서 남편을 찾고 있는' 한 경찰관 부인의 모습에서 좌·우대립의 극단적인 반목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이념적 대립은 민족의 비극인 6·25에서 정점을 이룬다. 3년 1개월 동안 한반도 전역을 초토화했던 전쟁은 우여곡

절 속에 종결된다. 기나긴 군인들의 행진, 허기에 지친 모습으로 나앉은 피난민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포로수용소, 길기대회를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군중들, 그리고 휴전선으로 이어지는 사진에서 당시의 참화를 볼 수 있다.

《격동기의 현장》은 작가가 호남신문사 사진부장을 거쳐 중군기자로 활동하는 동안 남긴 기록이다. 사진 한 장 한 장은 역사의 절곡 한가운데 있었던 이경모씨의 분신인 듯싶다. 사진작가로서의 열정과 시대정신을 필름에 담은 그는 이 사진집 이외에 교회 기념집으로 《이경모사진집》(1995 눈빛)을 펴냈다. 지금은 개인적인 사진작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나주 동신대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 오완진 기자

# 출판저널

통권 제227호/1998년 1월 5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연  
기자 — 마정미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매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표지고민?

디자인 예원이 있습니다  
T.548-5420,  
F.3444-1515



표지디자인, 광고디자인, 정기 간행물 등  
출판과 관계된 모든 작업  
... 디자인 예원

GOOD DESIGN GOOD PARTNER

## 소박한 심정에, 소신껏 표지디자인



표지에 관한 스트레스 —  
이제는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전화부터 주시면 대항관계자료를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양무리**  
출판미술의 모든 것  
TEL. 267-0396, 272-8097

“손끝 하나로 세계출판시장을 본다”

팩스번호 700-1000  
〈코드번호〉 4400  
〈이용안내〉 9999

### 해/외/출/판/정/보

팩스정보 서비스

- ▶ 전세계 주일간 베스트셀러 목록
- ▶ 신간도서정보와 화제의 책 소개
- ▶ 북리뷰로 보는 전세계 출판의 흐름

팩스로 보는 해/외/출/판/정/보

#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 1년분 (22호)  
40,000원
- \* 반년분 (11호)  
22,000원